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KOLPING 콜핑이면 충분하다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652호 1판 (음력 11월 8일)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메리 크리스마스" 거리로 나온 산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시 북구 일곡중앙교회 신자와 어린이들이 '성탄절 거리축전 함께하는 일곡한마당' 행사를 열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등산 개발 이번주 공모

상가시설 대폭 축소 … 민간투자 여부 미지수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자를 이번 주 공모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판매시설의 면적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우려가 높다.

광주시는 24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투자자 공모를 이번 주 중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218.5㎡)에 각종 유원지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수년이 걸린 불발탄 제거와 경기불황, 민간업체 자금난, 공공시설 개발부담에 따른 수익성 결여까지 겹쳐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회원제(18홀, 87만7423.5㎡), 대중제(9홀, 69만40㎡) 등으로 구성된 골프장(156만7463.5㎡)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용역과 민간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민간개발 방식을 전제로 숙박시설 축소·상가시설 확대 등을 결정했다. 숙박시설 면적을 기존 14만5799㎡에서 10분 1 수준으로 줄였다. 대신 상가시설 면적을 2만4170㎡에서 12만9000㎡로 5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상인 관련 단체 등이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조치라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었다. 수차례 협의 끝에 시가 판매시설 면적을 애초대로 하기로 대폭 양보한 결과가 이번 공고로 나타났다.

판매시설 면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대규모 민간투자자가 나타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수년간 투자와 개발이 지연됐던 원인으로 상가 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판매시설이 부족했다는 점은 용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투자자는 토지매입 비용 600여억원과 개발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강행" "보이콧"…브레이크 없는 분당 열차

뉴스초점 –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운명의 일주일

안철수 대표, 27～30일 나흘간 실시 … 통합 드라이브

통합 반대파 "결사항전" … 호남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둘러싼 국민의당 갈등 사태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연계한 전(全)당원투표를 오는 27～30일 나흘 동안 시행한다고 24일 공식 공고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파는 당내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통합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반면, 호남 중진들을 구심점으로 하는 통합 반대파는 '투표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결사항전' 입장이다. 양측 모두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정치권에서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민의당이 '분당'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호남 민심이 만들어 냈던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제3의 길'이 1년6개월 만에 파국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에선 국민의당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호남 민심은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은 물론 통합의 전략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위기 국면에서 당의 역량 결집보다는 갈등이 갈수록 확산하고 11석에 불과한 바른정당이 호남 지역주의와 보수 통합 등을 거론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 대표가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을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역풍도 상당하다. 이는 호남 정치 세력을 사실상 지역주의에 기댄 구태 세력으로 폄하하는 것으로도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가 민주당과의 개혁 경쟁을 요구하는 호남 민심과 함께 가기 보다는 정치적 미래를 위해 중도 보수로 좌표를 바꾼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분열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가능성이 높아 겨우 틀을 잡았던 호남에서의 경쟁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다. 과거의 1당 독점 체제가 다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보다는 당내 주류 세력에 충성 경쟁을 하는 구도가 재현되면서 호남의 미래 비전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장을 차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또 국민의당 사태는 호남 정치권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에 대해 '나갈테면 나가라'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탈당한다면 '눈길 줄 생각없다'고 못을 박았다.

바른정당에서는 통합에 앞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배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치 세력의 구심점인 유력 대선주자 부재로 인해 개혁 진영의 심장이었던 호남 정치권이 상수가 아닌 변수의 처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결국 국민의당 사태는 지역을 넘어 시대적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를 호남 민심에 다시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광주 중진 의원은 "서글프고 참담하다. 정치적 기득권에 안주하려 했으면 민주당에서 나와 제3당을 창당하지도 않았다"며 "결국 호남 정치의 미래는 지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목욕탕서 불나면 어떡하지? ▶6면
동네책방－영국 런던 돈트북스 ▶18면
다시보는 KIA 2017－양현종 ▶20면

긴급차량 통행 방해 예상지역 주정차특별금지구역 지정 등

소방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원인이 부족한 소방안전 시스템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제천 화재 당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인명구조가 지연된 것과 관련,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고서도 수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내용은 도로 모퉁이,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별도로 표시하고,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적인 경우의 2배로 부과해 엄격히 관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장기계류 중이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해당 소방관은 제외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대형 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 관련 법안들은 비교적 빨리 처리되는 편이지만, 아직도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회 입법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